예수님의 지상명령(II)-도하(渡河)

(마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II)-도하(渡河)>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학위과정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도교수님으로 마음에 둔 분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지도교수님 성함이 Eberhard Bush 에버하르트 부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께서 제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였냐 하면 '내가 당신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교수님 밑에서 학부시절부터 계속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면 신학적인 소양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 수 있어서 박사과정에서 지도할 때 아, 여기서부터 어디로 끌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당신이 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왔으니 내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끌어서 어디로 갈 것을 알아서 당신에게 내가 Doktorvater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저의 신학적 소양을 알 수 있기 위해서 논문을 하나 써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명령의 요지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깁니다.
모든 민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득의 많고 적음을 무시하고,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으려면,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기에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어디에 있기에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그들이 서있는 위치는 어디인데 우리가 그들을 제자삼아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선적으로 우리가 언명을 해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제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존의 공생애 때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로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사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보냄 받은 자들이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보내고 계시는 그 제자들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조차도 왜 번역을 원문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동번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자들과 유수한 목사님들이 번역하신 게 아니겠어요?
잘못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도 자기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2011년 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자훈련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인가 하는 것이에요.
부활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자들입니다,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계시지마는 계신 위치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것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 저편으로 가계신 분이 지금 갈릴리라는 공간에서 죽음의 강 이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믿는다는 것이 내 심장을 꺼내어 준다는 말이니까… , 크레도라는 말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고백을 뜻하는 크레도가 라틴어로 심장을 꺼내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강을 건너신 주님에게 드린다는 얘깁니다.
내 몸은 아직 강 이편에 있지만 내 심장은 죽음의 강을 건너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심장은 죽음의 강을 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를 삼으러 나가고 보내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 삼은 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강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만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38선을 공비가 넘어오듯이, 38선 밑으로 땅굴을 팠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죽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좋을까? 과연 괜찮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경계 안에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마음이 이곳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얹어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지상명령을 누가 받습니까?
죽음의 강을 넘어간 자들, 죽음의 강을 도하한 자들, 몸은 비록 죽음의 강 이편에 있지만 이 사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죽음의 강을 넘어가신 그 주님에게 가서 머물고 있는 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내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앞서 하십니다.
'민족을 제자 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권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은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열한 제자가 어떻게 로마총독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황제를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민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재벌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부 출신에, 세리, 목수, 이런 자들이…
전 인류역사를 보면 별 볼일 없던 유대나라에서도 하층민에 속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열한 제자가 석가모니도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야 되고, 공자님이 계셨으면 공자님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소크라테스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대통령과 임금과 재벌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제자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자님께 제자 계로가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님께서는 죽음의 강을 넘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강 이쪽에서 지혜자였습니다, 죽음의 강 이쪽에서 성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죽게 된 것을 슬퍼하는 지인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음을 슬퍼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죽음이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는 것을 어떻

게 확신할 수 있느냐? 죽음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공자님과 같은 결론입니다.

석가모니, '공즉색 색즉공, 이 세상의 5감관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세상의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특이하게 공(空)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석가모니의 인격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죽음의 강을 넘어선 게 아닙니다.
공즉색 색즉공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 자신의 인격이 죽음의 강을 넘어선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끝났으니까.
죽기 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 자신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지 못한 채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자기들의 심장을 얹어놓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얹어놓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추상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실존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갈 때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어부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조차도 넘어가지 못한 죽음의 강을 넘어간 상태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몸은 강 이편에, 마음은 죽음의 강을 넘어서 세상경계 바깥으로 나가있는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넌 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재벌도 임금님도 그 누구도 다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죽음의 강 이편에서 전전긍긍하며 더 많이 모으고, 경쟁에서 이겨 높아지려 하고 있고, 더 오래 살려 하고 있고, 모든 관심과 걱정과 지혜와 지식의 결론이 다 이 세상경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경계 바깥으로 죽음의 강을 넘어간 입장에서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복잡하게 알고 그렇게 대단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세상경계 안에 머물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나에게 배워라! 세상경계 바깥으로 나가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강을 건넌 분이시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하한 입장, 죽음의 강을 건넌 입장에서, 마음이 그쪽으로 간 입장에서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건희 씨를 만나서 그분을 제자 삼았다고 합시다.
이건희 씨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분의 마음은 결국 죽음의 강 이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달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죽음의 강을 넘어서 세상 밖에 존재한다면 이제 그분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아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희 씨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마음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죽음의 강을 넘어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공복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배가 비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경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로라도 공복을 채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신을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마음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둔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이고 세상의 경계 바깥으로 떠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다도 걱정이 안돼요.
왜? 마음이 세상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회사가 잘되고 안 되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들 얘기할 겁니다, '그게 사람이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치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냐 어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냉혈한이냐?'
'돈을 벌어도 안 기쁘고 못 벌어도 슬프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자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관없이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이 따로 논다면 그게 어디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참 인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에 미스 김이 입사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팀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서른다섯이 되었어요, 결혼을 못 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성질을 냅니다,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요,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대학 전임강사를 하고 있는 서른여덟의 노총각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얼굴이 웃고 있어요.
자, 이 미스 김의 기쁨의 이유가 회사 바깥에 있습니다.

회사 바깥에서 이미 기쁜 채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회사라는 사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미스 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승진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성과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아래 사람들을 잘 거느림으로써 기쁨의 이유가 될 때의 미스 김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 기쁨의 이유를 둘 때에 회사를 위해서도 결코 능률적인 캐릭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사 바깥에서 이미 기쁜 채로 들어왔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기쁨에서 창의력도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입사에서 지금까지 미스 김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움 캐릭터를 연출하게 된 겁니다.
어떨 때? 회사 바깥에서 기쁨의 이유가 있을 때.

어떨 때 아름다운 어머니가 됩니까?
아들과 딸이 전혀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고 아들과 딸의 바깥에서 이미 기쁜 상태에서 어머니로 등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캐릭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강을 건넌 사람 입장에서 강 이편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제자에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기쁨의 이유가 없어도 괜찮겠느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 운이 텄어,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전혀 기쁨이 없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느냐?'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무엇으로 기쁩니까?
'하나님아버지와 아들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은 채워질 것이고 기뻐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걸 확인해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도하(渡河)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복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이 세상 경계의 바깥으로 빠져나간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입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며 무엇으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것입니까?
하늘아버지와 아들하나님과 성령하나님으로 기쁠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강을 건넌 자의 입장에서 강을 건너지 못한 자를 제자로 삼고, 이제 나와 함께 강을 건너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될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삼위 하나님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만족할 것을 결단하는 결단의 표현을 세례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기 전에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도달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냄에 연합함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경계를 빠져나와 넘어온 자일 것입니다.

오직 도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만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 도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